

2022
이단경계주간
자료집
(10.31~11.6)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목 차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제 • 이 철 감독회장	2
기도회 자료 1 (신론, 삼위일체론) • 유경동 목사	3
기도회 자료 2 (기독교론) • 권진호 목사	4
기도회 자료 3 (성령론) • 신동욱 목사	5
기도회 자료 4 (교회론) • 김영내 목사	6
기도회 자료 5 (구원론) • 한철희 목사	7
기도회 자료 6 (성경론) • 이인구 목사	8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10
이단경계주일 설교문 / • 김현식 목사	12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제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경험하며 그 폐해의 심각성은 교회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였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되어 기독교의 대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되고 이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이단문제 때문에 교회는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반기독교메세지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독교신앙을 향해 도전해 옵니다. 과학, 예술, 문학등을 동반함으로써 현재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가옵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최소한 먹는 것에 관한 한 궁색함은 없어졌으나, 영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풍요에 비해 영혼의 갈증을 호소합니다. 명상, 요가, 기수련, 마음 수행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신비주의, 심령술, 마음 에너지, 초자연 현상, 채식주의등은 거의 종교적이라할 수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잘못된 이단을 근절하고, 비뚤어진 영성을 바로 진단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무성함 속에 감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전례 없던 칠년 풍년기간 동안, 그 이후에 찾아올 칠년간의 대기근을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전통에 서서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 힘쓰면서 이를 통해 사회의 개혁과 성화에도 관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영국사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운동으로 불려졌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정통교회입니다. 이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모범과 표준을 제시하는 교회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매년 이단경계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상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발행되는 자료집이 영적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믿음의 자양분이 바랍니다.

특별히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이단대책위원회 위원분들과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31일

감독회장 이철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첫째 날(2022.10.31. 월요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신론, 삼위일체론)

-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 성경: 요 1:10~14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1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창 1장).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요 1:1).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계 22:13).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된 인간과 “사랑으로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1:10),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요 1:11).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셨고 인간이 신음하는 죄의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서(요 1:12)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요 1:13).

이단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관계를 왜곡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역사성만을 강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과 화해하신 예수님이시며 이 역사 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사도신경의 핵심이며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주기도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갑시다.

■ 한 줄 기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에 거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경동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둘째 날(2022.11.1. 화요일)

예수 그리스도(기독교)

-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 성경: 요 1:41
- 참조: 사도신경 두 번째 조항(“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해 하나님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 생명을 주시며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돕는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구해 내심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요 1:41)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요 3:34; 행 10:38). 그리스도가 기름부음을 받은 이유는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시기 위함입니다(참조. 출 30:30; 왕상 19:15-16).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인 동시에(요 1:1; 요 5:26; 빌 2:5-6; 히 1:3)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독생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요 1:14)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독자로 태어나셔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여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우리와 다른 점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순결하다는 점입니다. 구원자가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벧전 1:18) 그분의 거룩하고 귀한 보혈(벧전 1:19)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딤후 2:14).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서 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섬김으로 의와 순결과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한 줄 기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진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죄용서함 받게 하소서.

권진호 목사 (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 이단대책 전문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셋째 날(2022.11.2. 수요일)

함께 하시는 성령(성령론)

- 찬송: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 성경: 요 16:7-11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3조

이단과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이상한 신비주의나 열광주의 현상으로 착각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이해를 근간으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감리회 신앙고백과 본문에 나온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 구원론적인 사역(개인적 성화)과 선교적인 사역(사회적 성화) -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구원론적인 사역입니다. 감리회 신앙고백 3조에 따르면 감리교회는 “우리과 함께 계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고,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고별설교(14-17장)에서 성령은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토스)로 호칭됩니다.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보혜사란 호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고 완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법적인 인정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며, 죽음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함으로써 ‘삶이 복음인 사람’으로 성화됩니다(롬 8:4절).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회복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책임적 존재’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롬 8:1-2절).

두 번째로 성령의 선교적 사역입니다. 요 16:7-11절은 성령께서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 확증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을 통해 성령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세상의 성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Covid-19 팬데믹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윤리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윤리의 공황시대이고, 복음을 떠드는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복음의 공황시대입니다. 이런 때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절대적으로 결합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적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 한 줄 기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이 온전히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동욱 목사(협성대학교 시학과 교수, 이단대책 전문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넷째 날(2022.11.3. 목요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교회론)

-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성경: 엡 4:11-16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6조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었고, 정부방역정책으로 한 때, 교회의 중식(中食)이 금지되어 오후예배와 친교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마다 아직도 10%-30%에 이르는 성도들이 현장예배를 떠나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구제와 봉사의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다시한번 건강한 '교회론'의 정립을 요구합니다. 교회론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미래 위에 쌓은 집처럼 전염병, 이단들의 공격에 한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는 '부름 받아 나온', '택함 받은'이란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공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행 19:32, 41). 이에 따르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구주)로 신앙 고백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마 16:16)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러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구주)로 믿는 각 지체(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본문 16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머리가신 주님으로부터 각 성도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머리와 각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듯, 주님과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고백 위에 각 지체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머리가신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분명한 교회론을 가질 때 전염병이나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14절).

몸이 균형 잡힌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하듯, 성도들도 머리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십자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사랑받기만 기대하는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자라나 사랑을 전하는 이가 될 때 머리가신 주님을 닮게 됩니다(15절).

오늘 날, 전염병 차단을 위해 시작된 온라인 예배는 그 부작용으로 전염병과 상관없는 시청자로서의 예배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신 예수님으로부터, 각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결된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말라죽듯이 주님으로부터, 지체들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머리가신 주님과 한 몸인 성도들로부터 떨어진 신앙생활 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12절)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 한 줄 기도

이단사상이나 전염병 등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견고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내 목사 (중앙연회 예수공동체교회, 이단대책 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다섯째 날(2022.11.4. 금요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구원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성경: 갈 3:1-11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5조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난 거짓된 구원론과의 싸움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기독교 이단들의 지속적인 출현과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짜 구원론의 공격으로부터 성경적 구원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때부터 이미 거짓된 구원론은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적 구원론을 퍼뜨린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미혹당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거짓 교사들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유대교적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돈에 빠트리며 잘못된 구원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에 빠진 것에 대해 사도바울은 얼마나 속상한지 갈3: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한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 바울의 전한 진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거짓에 속아 배교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997년에 선포된 우리 감리회 신앙고백 5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죄인 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 윤리, 사상, 선행, 고행, 수행 등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허락됨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상숭배와 종교는 한결같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율법주의 이단들의 주장도 모양만 다른 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나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혼합주의, 다원주의도 동일한 거짓된 주장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의 종교와 수많은 종류의 이단들은 인간중심의 가짜 구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굳건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거짓된 주장에 속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거짓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철희 목사(충청연회 서천제일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여섯째 날(2022.11.5. 토요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성경론)

-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 성경: 딤후 3:16-17
- 침조: 감리회 신앙고백 4조

오늘은 여섯 번째로 '성경'에 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에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며,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며(딤후3:16, 히4:12),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히4:12). 성경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면 벌을 받고 화를 받는 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는지,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신구약 66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감리회 신앙고백 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감리회 신앙고백 4조에는 감리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고백 중에서 성경에 관한 신앙고백으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목적을 잘 가르쳐 주고 있으며, 16절을 보시면 성경이 4가지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교훈에 유익하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여 유익하며, 둘째, 책망에 유익하다. 책망은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어디서 변질되고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셋째로,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바르게 함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또한 말씀에서 떨어진 내가, 어떻게 다시 말씀의 길로 되돌아 갈 수 있는지 나를 바르게 해주고 고쳐주는 효능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기에 유익하며, 넷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이란 말은 훈련이란 말입니다. 의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 길을 교훈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책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말씀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기 의지력으로 될 수가 없기에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구비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성경이 그 효능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나를 지탱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는 효능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이 납니다. 자기 눈과 생각과 귀에 유혹과 시험을 스스로에게 공급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생명수와 생명양식을 줄기차게 공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소생케 하고, 자기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 1:8절 말씀처럼 이 율법 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셔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한 줄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이단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인구 목사(중부연회 십정중부교회, 이단대책 위원)

■ 11월 1주일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전 주		반주자
* 입례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온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경배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 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봉헌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 11월 1주일 이단경계주일 설교문 ■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16절, 로마서 3장 23-24절

-예수님에 대한 인식 :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정통과 이단의 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본이자 중심이며 또한 기준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바로 이 구원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왜곡하는 것에 그 근거를 삼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전면 부인하거나 혹은 부분만을 말하므로 온전한 구원관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구원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인생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으셨고 이에 듣게 되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세례요한은 영생을 얻기 위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고(눅 3:3) 엘리야는 한 시대 국가적 차원의 지도자 역할로서 비중있는 인물이었습니다(왕하 2:12). 여기에 예레미야는 어수선한 시국에서 나라의 국운에 대해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렘1:13~19).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그저 한 시대 한 나라를 위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일 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대로의 만유의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단의 침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스며들어 예수님에 대하여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시대의 제한된 선지자로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대응,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듣게 되시는 답은 참으로 경탄할만한 답안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무흠(無欠)의 문답(問答) :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복되다 하였고, 나아가 이 답안의 출처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 되시고 답안의 출처는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는 이 질문과 답안이 무흠하다는 것이고 믿는 이들에게 있어 ‘무흠의 문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답은 믿는 이로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를 지옥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주셨습니다.

2.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구원자로,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 인간의 구원에 있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¹⁾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결코 인간의 자손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²⁾ 주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³⁾ 주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며⁴⁾ 주님의 일을 만나는 것

1)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2) 눅 20:4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 하나님의 일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고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반석 위의 교회 :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神性)으로서 하나라는 고백을 하는 그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움 받게 될 때에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the gates of Hades’(πύλαι ᾗδου), 곧 ‘지옥의 문’으로 구원 받지 못한 인간은 누구나 가게 되는 멸망의 길이 됩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에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4. 천국 열쇠 :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또한 이때의 기도는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천국 열쇠를 얻게 됨과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정통과 이단의 구별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절대성에 있으며 이 예수님이 곧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신앙고백이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것으로 이것을 신조와 교리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이 칼케돈 신조이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됩니다. 이것을 교리로 나타낸 것이 ‘이신칭의’ 교리와 ‘삼위일체’ 교리가 됩니다.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교리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⁵⁾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있어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동일하다는 것인데⁶⁾ 여기서 신성(神性, divinity)이란 하나님으로서의 위격, 하나님으로서의 역사, 하나님으로서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에 대한 구별과 대비, 나아가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던 내용,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주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主, Lord)가 되심⁷⁾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⁸⁾ 그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령님이 늘 증거 해주시는⁹⁾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이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온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 **김현식 목사(샘물교회,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4) 요 14:9-10.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¹⁰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5)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²⁴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6) 마 3: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¹⁷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7)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8)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9)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